

의료의 질 향상 정책동향 및 당면과제

Trends and Policy Recommendation for Quality Improvement



이 선 희

이화여자대 예방의학교실

Sunhee Lee,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e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 lsh0207@ewha.ac.kr

J Korean Med Assoc 2006; 49(8): 652 - 4

Abstract

Quality Improvement(QI) is the main agenda rising rapidly at the health policy. Recent policy trend like hospital evaluation with public reporting and evaluation of appropriateness in health insurance areas show that QI become the main target agenda of government. Especially, medical societies should give their attention to this policy change because QI related polic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redibility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public.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understand problems which recent QI policies are confronted and ask for modification as follows: the duplication at several evaluation areas, ineffective evaluation approaches, etc.

Keywords : Quality improvement;

Trand & Policy Recommendation

핵심용어 : 의료의 질 향상; 정책동향 및 당면과제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와 2004년부터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정책이 과거 건강보험정책 중심의 비용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질 향상 정책으로 정책반경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적 보조를 질 향상 부문으로 확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의 폭을 가파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는 반면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책흐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폭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는 듯 싶다. 이러한 의료계의 인식과 대응을 보다보면, 과거 건강보험에 대한 무관심 속에 전국

민 보험체제로 확대되고 나서야 그 파급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 개선의 여지를 확보하기에 너무 늦었던 뼈아픈 과오가 질 향상 정책 추진과 정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과 같은 비용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전문가의 고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그나마 존재하지만 의료의 질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설혹 질적 문제가 건강보험 수가수준 등 제도적 문제와 연계되었다 할지라도 최종 책임은 고스란히 전문가의 몫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료의 질 문제가 의료계의 대국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보험 제도의 그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결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계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동향이라고 판단되며 이런 취지에서 최근 질관련 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평가정책의 혼선과 중복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요구될 필요가 있겠다. 타당한 평가를 위해선 평가주체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평가받는 기관도 자료준비와 현지평가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상기관의 심리적 부담감은 차치하더라도 상당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이어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는 기관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영역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각종 정부당국의 실태조사와 항목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의 중복은 불필요한 유·무형의 행정비용

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평가의 중복은 최근 정부 각 부서들이 다양한 취지로 평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평가의 기능분담과 중복영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주체내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사안은 2007년도에 실시될 2주기 의료기관 평가에 임상기술에 대한 질 평가지표를 도입(이하 임상질지표)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된 문제이다. 의료기관 평가에 임상질지표를 포함시킬 경우, 현재 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임상질지표 평가와의 중복이 불가피해지는데, 임상질지표 평가는 여타 평가보다도 자료마련 및 수집에 대한 노력이 큰 영역이므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중복해소에 대한 적극적 대안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 평가정책을 타당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가칭 '질평가협의체' 등과 같이 주요 행정주체들이 중심이 되되, 질 평가 관련 이해자들을 포함한 조정창구가 마련되어 각 분야별 질 향상 정책이 조율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교통정리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평가를 준비하고 받는 데 1년이 지나간다는 대상기관들의 푸념은 질 평가 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예이며 관료적인 평가에 매몰되어 정작 질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를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질 개선의 정보를 얻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선 선순환방식의 질 평가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즉 평가대상기관들이 평가결과를 허심탄회한 질 개선 정보로 활용하려면 우선 평가지표들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합의와 의료계의 공감대 모이시고 이렇게 산출된 평가지표

가 개선목표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반추하면서 질을 개선시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질 평가와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질평가정책을 보면 의료기관 평가나 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모두 평가지표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바, 이는 행정적인 평가일정에 쫓겨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사전적 노력이 부족했던 추진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임상질지표의 경우 임상시술에 대해 합의된 임상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감대 수립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평가정보 활용에 앞서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 발목이 잡힐 수 있고 향후 의료현장에서의 개선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선순환정책의 요체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서, 요건 하나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하는 사전적 노력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 부족한 영역에 대한 개선노력을 모색해가는 것이다. 또다른 요건은 임상질지표의 개수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각 지표별로 평가 및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지표별 주기를 설정한 후 지표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나 의료기관 평가 등에 대한 의료계의 조직적 대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정부의 주요 질 평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의견수렴은 지역단체와 세부 전문학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전문성이나 행정적 용이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평가지표가 일부 지역단체의 위상강화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고 전체 진료현장의 현실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질 평가 정책의 큰 흐름속에서 의료전문가로서 능동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세부 단체들 중심의 창구로는 미흡하다. 현재 의협, 병협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전담대응부서가 있으나 질 평가에 대한 대응부서는 부재하여 정책대응에 공백이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질 평가 정책에는 주요 전문학회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의협, 병협의 전문학회 협의체인 대한의학회를 포함하여 범 의료계적인 대응창구를 만들고 질 평가 정책에 대한 정책들을 주도하며 정책에 대한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료의 질은 전문가가 확보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자 권한의 영역임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인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㉔